

결국 산으로 간 2022 대입 공론화委

# 정시 40% 확대… ‘내신+수능’ 수험생 부담 못 줄였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유보  
중장기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학종 비율 확대·축소 의견 ‘비슷’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수능 상대평가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해, 당초 수험생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대입 개편 취지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 490명의 시민 참여단의 설문조사 등 공론화 결과, ‘정시 선발 비율 45% 이상과 수능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1이 3.40점(5점 만점 리커트 척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는 3.27점으로 1, 2위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단일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어 의제4가 3.14점, 의제3이 2.99점 순으로 조사됐다.

## ◆ 수능 비율 10~20% 확대 될 듯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능위주전형 확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2022학년도 대입)

의제 1 (지지도 1위)	의제 2 (2위)	의제 3	의제 4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비율	수시·정시 균형 유지. 정시 45% 이상 선발	대학자율 (단 특정 전형에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도록)	대학자율 (단 특정 전형 하나로만 선발 지향)
수능 평가방법	상대평가 유지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상대평가 유지
수시 수능최저학력 기준의 활용	대학 자율	활용 가능	대학자율

※ 시민참여단 490명 참여 자료/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의제별 지지도  
(3차 조사 기준, 5점 만점)

연합뉴스

## ◆ 상대평가 유지 속… 수험생 ‘내신+수능’ 동시 준비해야

교육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키로 했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시행은 당장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보다 절대 평가 확대가 적절하다’(53.7%)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상대평가 과목 확대’(34.8%)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행 유지’ 의견은 11.5%였다. 이에 공론화위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수능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입 개편의 핵심 시안인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공론화 결과로 나옴에 따라, 현 중 3 수험생들은 학생부를 위주로하는 수시모집과 수능을 위주로하는 정시모집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수능 상대 평가가 유지된 상황에서 정시모집이 확대됨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능비율 10~20% 확대 될 듯

대(20% 이상)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일반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에는 19.9%로 ‘수능 전형 선발비율 45% 이상’의 의제1이 단일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수능 전형 선발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능 전형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40% 이상~50% 미만’(27.2%) 의견이 오차범위 밖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30%~40% 미만’(21.2%), ‘20%~30% 미만’(14.2%), ‘50%~70% 미만’(12.8%) 순이었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이 40% 내외로 지금보다 대

학별로 10~20%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 하늘교육 평가자는 “수시 대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77대 23에서 2022학년도엔 67대 33으로 정시 비율이 종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주요 11개 대학 기준으로 2020학년도 평균 29.0%에서 2022학년도 35%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인원이 4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을 묻는 조사 결과에서는 현행보다 학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왔다. 올해 대입 학종 비율

이 37.0%, 내년(2020학년도)에 36.7%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참여단은 현 수준의 학종 전형 비율을 원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현재 수도권 대학 위주로 50~60%에 달하는 학종 선발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 크다. 교육부가 법령을 만들어 학종 적정 비율을 제시할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자 선정 평가를 통해 학종 전형 비율 축소를 유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는 올해 초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선발 비중을 높여줄 것을 비공개로 요청한 바 있어, 이 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시선발을 높이면 자연스레 학종 선발 비율은 낮아진다.



한성대는 지난 3일 교내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소·중견기업 20여 곳과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 한성대 ‘先취업 後학습’ 교육체제 구축 앞장

한성대(총장 이상한)는 지난 3일 교내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중소·중견기업 20여 곳과 ‘산학협력 역량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구조적 원인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선취업 후학습’ 교육체제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한성대와 기업 관계자들은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한성대는 지난 7월 교육부 주관 ‘2018년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선정돼

평생교육단과대학인 ‘미래플러스대학’을 신설, 재직자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부터 법·행정학과, 호텔외식경영학과, 뷰티디자인학과, 비즈니스컨설팅학과 등 4개 학과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성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선취업 후학습’이라는 교육 패러다임을 구축·강화하기 위해 ‘2018년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한용수 기자

## 이화여대, 첫 ‘대법관’ 배출 “사법계 유리천장 깼다”

여대 출신 ‘노정희 대법관’ 취임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 열려

이화여자대학교(총장 김혜숙)가 첫 대법관을 배출했다. 지난 2일 취임한 노정희(55·이화여대 법학86) 신임 대법관이 그 주인공이다.

5일 대법원과 이화여대에 따르면, 현재 여성 대법관으로는 김소영, 박정화, 민유숙 대법관이 있으며 노 대법관이 인준됨에 따라 대법원 최초 여성 대법관 4명 시대를 맞았다.

여성 대법관은 1948년 대법원 출범 뒤 반세기가 넘은 지난 2004년 첫 임명됐다.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 대법관은 6명으로 전체의 4%에 불과하다. 노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여성으로는 사법 사상 7번째, 여자대학 출신으로는 첫 번째 대법관이 탄생했다. 대법관 8명 중 3명이 여성인 미국과 비교하면 이번 노 대법관 임명은 한국 사법계 유리천장이 깨졌다”는 의미가 있다.

노 대법관은 1963년 광주 출생으로 이화여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노정희 신임 대법관

사회복지법인과 관련해 그 임원들이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명령 사유가 된다고 선고하는 등 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소수자 인권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노 대법관 임명동의안에서 “28년 동안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며 공익의 실천을 깊이 고민하고 특히 여성과 아동의 권리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이태영), 헌법학자(윤후정 전 명예총장), 헌법재판관(전효숙 전 초빙석좌교수), 법제처장(김선욱 전 총장) 등 한국 법조계에서 전무후무한 ‘최초’ 기록을 세운 바 있다. 1996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여자 법과대학을 설립하고 2009년엔 법학 전문대학원을 개원했다. 올해 들어서도 최영애(기독교학 74년졸)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장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첫 여성 위원장으로 내정됐고, 인재근(사회학 77년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이화여대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한용수 기자

## 인천대 안성재 교수

### ‘노자의 수사학’ 책 출간

인천대학교(총장 조동성)는 교육대학원 안성재 교수(사진)가 ‘노자의 수사학-성인의 리더십과 인성론’ 책을 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안 교수는 앞서 ‘공자의 수사학’을 통해 군자의 리더십과 인성론을 설명한 바 있으며, 이번 책에서는 노자가 ‘도덕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말이 다름



아닌 ‘대동사회로의 복귀’라고 했다.

또 노자가 말하는 ‘도(道)’는 ‘천도(天道)’, 즉 하늘의 뜻에 따르는 무위자연의 도를 뜻하고, 이는 결국 대동사회의 지도자인 성인(聖人)의 통치이념이라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했다.

/한용수 기자

##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논문, 타 대학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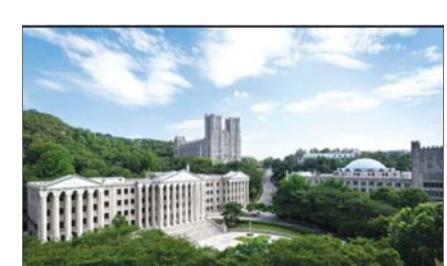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논문 배출 비율이 국내 사이버대학 대학원 중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희사이버대가 대학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6년~2018년까지 최근 3년 간 경희사이버대 대학원 졸업생은 228명이었고 이 기간 중 112편의 논문이 나왔다. 졸업생 수 대비 논문 배

출 비율이 무려 49.1%에 달했다.

경희사이버대 대학원의 졸업생 수 대비 논문배출 비율은 타 사이버대학 대학원(A사이버대 대학원 12.7%, B사이버대 대학원 7.6%)보다 최대 6배 이상 높은 것이다.

경희사이버대 관계자는 “대학원생들의 연구 의지와 교수들의 체계적인 지도에



힘입어 학위논문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는 비중이 약 50%에 달한다”고 말했다.

/한용수 기자